

###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의 결정과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상관관계

안태환 HK연구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 주요 내용

- 제23차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는 석유 생산 감축을 결정함.
- 베네수엘라의 석유 국유화는 1975년에 이루어졌으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베네수엘라가 기본적으로 ‘석유 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비석유 부문의 산업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이슈 현황

### ☒ 제23차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는 석유 생산 감축을 결정함.

- 2016년 10월 19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3차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에 석유수출국기구의 14개 회원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해당 회의에는 당연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이들은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해 석유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결정함.
- 이미 올해 2월부터 러시아와 OPEC 회원국 간 생산 감축안이 합의됐으며, 이번 제23차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일일 20만~70만 배럴의 석유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함.
-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10월 7일부터 유가는 배럴 당 60달러대로 상승했으며, 유가 상승은 당연히 서구 및 일본, 한국에 좋지 않은 소식임.
  - 그러나 최근의 유가 하락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의는 베네수엘라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경제적 함의를 가짐.

### ☒ 이번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에 러시아가 참여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임.

- 러시아는 이미 중동의 이란, 시리아에서 미국과 대치 전선을 긋고 있음.
  - 최근 쿠데타 위기에서 벗어난 터키와 가까워지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과 같이 맞물려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기 때문
- OPEC 회원국과 비OPEC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슈퍼오펙(Super OPEC)은 차베스 대통령이 생전에 구상하기도 하였음.
- 이번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를 위해 마두로 대통령은 여러모로 공을 들였으며, 마두로 대통령 외에도 PDVSA 총재 및 에너지 장관(Eulogio del Pino) 역시 적극적으로 순방 외교를 벌임.

### ☒ 베네수엘라의 석유 국유화는 1975년에 이루어졌으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베네수엘라가 기본적으로 '석유 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까를로스 도밍고에 의하면, 1998년의 베네수엘라는 수출을 통한 외환 소득 중 80% 이상을 석유가 차지하고, 국내 조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석유로부터 오는 국가임.
- 차베스 혁명의 상당한 성취도 구조적으로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유가 상승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
- 그러나 2009년부터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가 세입 예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서 30%로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그동안 차베스 정부가 수행해오던 다양한 사회 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됨.

## 2 원인과 분석

### ☒ 석유 생산 감축 합의의 구상은 단순히 유가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님.

- 이번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석유 생산량 감축은 단순히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세계 체제에서 미국이 단일 초강대국으로 기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임.
  -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고, 중국이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도 상응하는 흐름임.
-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유가가 하락했으며, 우선 전 세계 경제가 불황에 처해 있어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함께, OPEC 내부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원유 생산이 계속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임.
  - 또한 비OPEC 국가의 원유 생산 증가 역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 알리 로드리게스 아라케에 의하면, 원유 부문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도 감소하였음.
  - 2014년에는 1,200억 달러, 2015년에는 500억 달러, 2016년에는 400억 달러로 투자액수가 감소하고 있음.

### ☒ 2000년대 초·중반의 유가 상승은 차베스 대통령의 공이 큼.

- 1999년 말과 2000년 초 유가는 배럴 당 8~9달러에 불과했고, 2002년에도 배럴 당 7~8달러에 그침.
  - 이 시기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며, 차베스 정부로서는 매우 정신이 없던 시기였음.

- 2003년 위기에서 벗어난 차베스 대통령은 급진적인 변혁 노선을 시작하였음.
- 원유와 관련해서 차베스 대통령은 2000년 9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제2차 OPEC 정상회의를 개최함.
  - 차베스 대통령은 1960년 OPEC이 창설된 이후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던 OPEC 회원국들을 순방 및 설득함.
  - 제2차 OPEC 정상회의는 크게 성공적이었고, 이 회의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지나치게 낮은 원유가를 비판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후 원유 가격은 상승해, 2008년 7월 배럴 당 122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차베스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단순한 수출에서 벗어나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나친 원유 가격의 상승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 치명적인 상황을 불러오며, 이에 차베스 대통령은 유가가 크게 상승했을 당시 PETROCARIBE를 통해 카리브 소국에 원유 수입의 이자 할인 등과 같은 지불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혜택을 부여함.
-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물 자원의 24%를 차지하고 있고<sup>1)</sup>, 거의 모든 광물 자원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의 수출 외에 이를 국내에서 가공하는 공업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실패함.
- 이러한 고질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차베스 대통령은 통합 전략을 구상함.
  - 단순히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 체제에서 자원 부국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을 통해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차베스 대통령은 이를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남미은행(Banco del Sur) 설립 프로젝트와 정치적 통합을 위한 UNASUR 출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그러나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이후, 그의 정치·경제적 프로젝트들은 쇠퇴하기 시작함.

1) 세계 8대 강 중 3개가 라틴 아메리카에 있음.

## 3

## 평가

### ▶ 차베스 대통령의 장기적 전략은 석유 시장의 결제 통화를 달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차베스의 정책 비전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유가 상승 국면에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졌던 탓인지,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운동과 농업 부문의 진흥 외에는 뚜렷한 경제 정책이 부각되지 않은 채 정치적·사회적 부문의 정책수행<sup>2)</sup>에만 몰두함.
  - 물론 농촌과 농업에 대한 공공 투자는 2004년에 비해 2008년에 거의 두 배에 이르도록 투입함.
- 차베스 정부는 석유 수입의 증대로 인한 재정 여유분으로 다양한 미션 사업을 통해 빈민계층에 대한 식품 공급 및 영양 강화를 성취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식품 및 생필품의 국내 산업 생산을 위한 전략이 마련되지 못했고, 이와 더불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못함.

### ▶ 차베스 정부의 농업 진흥 정책은 실패함.

- 최근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핵심이 식품 품귀에 있다면, 농업 진흥은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음.
- 마르가리타 로페스 마야는 과두 지배계급에 대한 적대적 상징 정책의 실천으로 대지주 소유 토지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이 토지들은 대부분 목장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고, 따라서 차베스 정부의 농업 진흥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함.
- 더불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농업 종사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 ▶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비석유 부문의 산업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임.

-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1970년대의 석유 호황기에서부터 차베스 혁명의 상대적인 성공으로 인해 일반 대중의 소비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비석유 부문의 산업 생산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지대 수입국’라는 구조적 한계로부터 온 것임.

2) 예시. 사회적 경제의 진흥

- 즉, 베네수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지나치게 이중화되어있으며, 석유 부문은 자본 효율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는 반면, 상업과 서비스 부문은 지나치게 노동집약적이면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구조를 가짐.
- 마리오 파히올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서비스 부문 종사 인구는 1998년 1.6%에서 2008년 1.7%로 거의 변함이 없음이 나타남.
- 다시 말해 차베스 혁명이 경제구조 자체를 변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최근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형은 유가 상승과 함께 마두로 정부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

- 멕시코의 일간지 밀레니오(milenio)에 의하면, 우파 야당은 의회에서 마두로에 대한 정치적 위기의 책임을 물어 사임하라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로 함. **EMERiCs**

#### 출처

Ali Rodriguez Araque, "La union de nuestra america, mision Bolivariana en marcha", [www.aporrea.org/imprime/a235789.html](http://www.aporrea.org/imprime/a235789.html) (2016.10.19일자)

Carlos Domingo, "Distribucion de ingreso petrolero de Venezuela", <http://webdelprofesor.ula.ve>

Fagiolo Mario, "La influencia de la renta petrolera en el desarrollo de la economia social en Venezuela, 1998-2009", Cayapa, 9권 18호

Margarita Lopez Maya & Luis E. Lander, "El socialismo rentista de Venezuela ante la caida de los precios petroleros internacionales", Cuadernos del CENDES, 26권 71호

"Maduro celebra la suspension del juicio politico en su contra", [www.milenio.com/internacional/venezuela-presidente-nicolas\\_maduro-oposicio...](http://www.milenio.com/internacional/venezuela-presidente-nicolas_maduro-oposicio...) (2016.11.2일자)